

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법치주의 지수 발표 결과

(’16. 10. 21, 청렴조사평가과)

〈조사개요〉

- 평가주체 :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(World Justice Project : WJP, 미국 워싱턴 소재, 세계 각국의 법치주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기구)
- 평가방식 : 각국의 법치주의 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모형으로, 평가대상국 소재 국민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
 - 대상국 · 평가분야 : 113개국 · 청렴도 등 8개 분야 44개 세부항목
 - 법치주의 실천 대상 분야 : 민법, 상법, 형사법, 노동법, 보건관계법
- 설문응답자 : 평가대상국의 3대 대도시 주민* 및 전문가**
 - * 한국은 서울, 부산, 인천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(1,025명)
 - ** 전문가 현황 : 법학과(로스쿨) 교수 8명, 로펌 변호사 4명, 기업인 1명 및 기타 비공개 참여 전문가

< 결과 분석 >

□ 종합결과 : 0.73점, 19위(3개 분야는 크게 하락, 5개 분야는 전년 수준)

- 청렴도 등 8개 분야(44개 세부항목) 평가 결과, 한국은 0.73점(1점 만점), 19위로 전년 대비 하락(’15년 11위/102개국, ’14년 14위/99개국)

분 야		점수(순위)	분 야		점수(순위)
1	정부권력 제한	0.68(27)	5	질서유지·치안	0.83(23)
2	청렴도	0.65(35)	6	규제 시행	0.75(17)
3	정부의 개방성	0.68(22)	7	민사사법제도	0.81(8)
4	기본권	0.70(32)	8	형사사법제도	0.71(17)

-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덴마크, 핀란드, 스웨덴, 독일, 싱가포르, 네덜란드, 독일, 영국, 일본, 홍콩, 미국 등 18개 국가

※ 금년에 새로 추가된 11개국(도미니카, 바하마, 바바도스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)은 모두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로 평가

□ 청렴도 분야(CPI 반영) 결과 : 0.65점, 35위(4개 분야 모두 하락)

- 행정부, 사법부, 경찰과 군, 입법부 등 4개 분야의 공적 지위 유용여부 평가, 0.65점 35위로 전년 대비 하락('15년 14위/102개국, '14년 16위/99개국)

설문내용		점수(변동)
1	행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	0.68(-0.09)
2	사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	0.83(-0.07)
3	경찰과 군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	0.77(-0.11)
4	입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	0.34(-0.38)

- (CPI 예측) '16년 CPI에는 100점으로 변환된 점수가 반영, 세부내용은 CPI 발표시 공개 예정(점수 및 순위 하락으로 부정적인 영향 예상)

구 분		'14년	'15년	'16년
전체	평가 대상국	99개국	102개국	113개국
	평균	0.53(원점수)	0.52(원점수)	미공개
한국	점수	0.79(원점수)	0.82(원점수)	0.65(원점수)
	순위	16위	14위	35위
	백분율	16.1%	13.7%	30.1%

< 원인 분석 >

□ WJP는 공식 논평이나 원인분석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(IMD와 유사)

- 다만, '15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의 아래와 같은 사건들이 각 부문별로 설문대상자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
 - 행정부 : 고위공직자(법무부, 교육부, 식약처, 울산시, 제주도 등) 뇌물 사건 등
 - 사법부 : 부장판사 뇌물사건, 전직 판·검사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의혹 등
 - 경찰과 군 : 전직 합참의장, 참모총장 연루 방산비리 사건 등
 - 입법부 : 정치인 뇌물사건, 총선 이후 당선자(100여명) 선거법 수사 등

금번 법의 지배 지수 발표로 CPI에 반영되는 개별지수 중 공개되는 지표의 결과는 모두 발표되었고, '16년 CPI 결과는 '17.1월중 발표 예정

⇒ 상승 1개(PERC), 하락 3개(법치주의 지수, WEF 및 IMD 국가경쟁력 지수)